

### 3/5(토) 여호수아 16-19장 그 땅을 그려오라

땅 분배에 관한 본문은 다소 지루합니다(13-19장).  
수많은 지명과 지역이 낯설고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도시 명, 지역 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토록 세세하게 성취되었다는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21:43,45).”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비전이(창12장)  
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은 지파가 있는 반면,  
나머지 7지파는 미온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정복을 미뤘습니다.  
여호수아는 위축되어 있고 한편 안일한 7지파를 책망합니다.  
직접 땅을 보고, 취할 구역을 <그려\*> 오라고 명합니다(18:3-4).  
\* 그리다 두루 다녀, 밸품을 팔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구체적으로 그리다

세상은 누군가와 경쟁하여 남을 밟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내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2지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정착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신 땅을 땀 흘려 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선물로 주신 땅을 <땀 흘려> 쟁취하고 있습니까?

- ① 내게 주신 <땅>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 경쟁합니까?
- ② 주신 <땅>을 얻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까, 위축되고 며뭇거립니까?